노·사 청렴 공동 실천 '맞손'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북교사노조 · 전북교총 · 한국교육노조 등과 협약 체결
민주적이고 투명한 직무 수행, 반부패 · 청렴 활동 공동 노력 등 내용에 담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전북교사노동조합 등 5개 단체와 노·사 청렴 공동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서거석 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노·사 청렴 공동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한국교육노동조합(위원장 박창용), 전북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익철), 한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지부장 황태학) 등 협약 체결을 희망한 5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과 이들 5개 단체는 청렴 실천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청렴 도약을 위한 굳건한 의지를 표명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직무 수행 △청렴 문화 공유와 반부패·청렴 활동 공동 노력 △부정부패와 부조리 강력 대응 △청렴 활동 솔선수범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렴 실천 협약을 통해 전북교육청 소속 모든 직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으로 청렴 문화 확산 및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생체재료공학 우수 연구 나선다

전북대 생체재료 · 시스템연구실 김주연 · 문준연 · 서일원 박사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지원 '2024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 선정

김주연

문준연

서일원

전북대학교 생체재료·시스템연구실 김주연·문준연·서일원 박사(BK21 바이오융합공학과)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24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박사후 국내연수)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박사후 연구원들에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간 6천만 원의 연구비가 최대 3년 동안 지원된다.

김주연 박사는 '세포 전기수력학적 프린팅 기술(E.H.D) 기반 광경뇌동맥류 치료용 차세대 혈관내피전구세포 담지 뇌혈관 스텐트 개발'이라는 주제로, 문준연 박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 인대의 영구 대체를 위한 고기능성 인공 인대 및 고정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로 각각 연구를 진행한다.

또 서일원 박사는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기반의 최적 인대 재건술 및 반복 응력 촉발 골 유도 재생 구조의 Ti(HPO4)2·CaHPO4 표면 개질된 인대 고정 장치를 활용한 치료 효과 고찰'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주연·문준연·서일원 박사는 "개인 연구를 이어감으로써 연구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지도 교수님과 연구실 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각자의 연구를 통해 생체재료공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1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기능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탁월한 실력 쌓아온 노고에 감사"

서거석 교육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학생 격려

서거석 교육감이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학생 및 지도교사를 격려했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 라한호텔에서 기능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도교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성과공유회를 가졌다.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은 26개 직종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 우수상 4개, 장려상 6개 등 총 25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날 행사는 교육감 격려사, 성과 보고, 입상 소감 발표,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 함께하지 못한 학부모들을 위한 포토존을 마련, 입상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오랜 시간 땀 흘려 연습하며 탁월한 실력을 쌓아온 학생 선수 여러분과 헌신적으로 지도해 온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생건강증진교육 컨설팅 지원단 운영

전북교육청, 상시 지원 가능한 컨설팅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건강증진교육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컨설팅 희망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까지 해당 학교의 보건수업과, 학생건강증진 정책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보건수업은 △일상생활과 건강, 감염병 예방관리, 질병 예방과 관리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및 흡연·음주 예방,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등이다.

이어 정책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건강한 체중 유지 관리, 건강검사 관리, 흡연예방 금연실천학교 운영 △응급처치교육, 시력·구강 및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보건실 운영 등이 있다.

특히 2학기부터는 지역 선도교사도 컨설팅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이날 학생건강증진교육 컨설팅 지원단 및 지역 선도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이리서초등학교 박수경 교사가 '담배와 환경파괴와의 관계'를 주제로 수업나눔을, 나정연 심리코칭연구소 소장이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자기이해·자기존중' 집단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 사례도 공유했다.

/장은성 기자

19일 전주만성중학교 식생활관에서 학교급식 튀김로봇 시연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튀김로봇이 조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 학교에 도입된 튀김로봇은 관련 업체에서 기증받아 설치됐다.

일관된 맛 · 품질 유지… 도내 첫 학교급식 튀김로봇 도입

전북자치도교육청, 전주만성중서 시연회 가져
로봇에 사람이 접근할 경우 센서가 동작 감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주만성중학교 식생활관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 튀김로봇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튀김로봇은 급식인원 500명 이상 1,0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기증 희망 의사를 받아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 설치됐다.

관련 업체에서 기증받아 설치된 이 튀김로봇을 이날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증업체 관계자, 노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튀김로봇이 조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로봇이 튀겨낸 음식을 시식했다.

튀김로봇은 재료를 통에 담아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최적의 조리 온도로 음식을 튀겨낸다. 정확하게 프로그래밍된 조리과정에 따라 일관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로봇에 사람이 접근하면 센서가 동작을 감지해 자동으로 멈추는 등 안전장치도 장착돼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시연회를 통해 첨단기술과 교육이 만나는 새로운 급식 현장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이 19일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 프로그램 개발 · 지원에 '뜻 모아'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와 협약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단장 최현영, 이하 전북지원단)이 19일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센터장 유수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현영 단장과 유수창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14개 시·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가 추진하는 아동 과학 관련 사업을 함께 하고, 전북지원단이 지원하는 14개 시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지원단 김서현 운영위원장(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 지역아동센터에 양질의 아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영 단장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창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외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양질의 과학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지원단은 현재 도내 287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평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교조 전북지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 불기소 처분 환영"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환영의 논평을 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학생 간 다툼을 해결하려다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군산 A중학교 교사의 검찰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군산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교사의 발언 경위와 횟수, 고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전북지부는 이 사안을 인지하자마자 긴급 서명을 진행, 7월 2일 군산의 경찰서, 검찰지청, 시청에 이 건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 서명을 전달했다. 더불어 7월 11일에는 6개 교원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기분상해죄'로 표현되는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면책, 무고성 신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교육부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 선정

호남 지역의 어려움, 사범대학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 지원
지역 중고교 35개교 이상 연수 대상으로 각 학교 5회씩 방문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은 교육부의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디지털 기반 교육의 전환 과정에서 호남 지역의 학교와 교사, 학부모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에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 지원한다.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및 스마트 기기 기술 지원 등 디지털 미래 교육 비전을 학교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별 여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은 전주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ICT 기업협회)와 키움인(KiuMiN) 등 호남과 제주권에서 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축,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초·중·고교를 찾아 연수를 수행한다. 특히 전주대학교는 호남 지역의 중고등학교 35개교 이상을 연수 대상으로 각 학교를 5회씩 방문한다.

전주대 사범대학은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최우수(A등급)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도 교육부 교원양성과정 혁신 사업(중등단독형)에서 전북 유일의 사업단으로 선정되기고 했다.

윤마병 학장은 "이번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전주대 사범대학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혁신을 이끄는 예비교원 양성기관으로서 호남 지역의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AIDT 연수와 디지털 기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지역 거점 사범대학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강형원 교수 치매극복의 날 대통령 표창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한의학전문대학원 강형원 교수가 제17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강 교수는 올해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취약계층 치매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아로마 두피케어, 노인학대 예방교육, 산림치유, 요가, 온열테라피, 한의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인지장애 한의중점연구센터장으로서 국가 치매 사업 정책, 임상, 연구에 기여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해 왔다. /익산=이재춘 기자